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시민안전실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중복되는 질의, 반복해서 답변한 데이터, 수치, 보고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서 의원별로 준비해온 질의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위원회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평가가 매끄럽지 않았다. 사전자료조사 및 데이터 수집 발표등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평가에 임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면이다.

2) 복지환경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꼼꼼히 하는 것은 좋아 보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질의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나노분야, 바이오분야) 추상적이거나 근거자료가 없이 질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시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하기 보다는 대전시의 중점 사업을 파악해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상세히 답변하는 모습은 좋았으나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요지와 관련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4) 교육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2. 상임위원회 일일브리핑

1) 행정자치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0일(화) 10:00 ~ 16:4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피감기관	시민안전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홍종원, 위원 : 문성원, 김종천, 민태권, 우승호)

(2)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_시민안전실 주요 안건

① 대전시 지역 안전 지수 상향 대책 마련에 대한 건

- 계속해서 특광역시중 평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결과에 대해 시민안전실이 분석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지역안전지수 상향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함. 시민자치구경찰, 교육청등 분야별 실무자들과 협력,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자까지 지원했으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과 가장 하위 점수를 기록한 자살률에 대해 마련한 방안에 대한 보고 요구함. 뿐만 아니라 안전도시조례등에 따라 위원회의 정기 회의 및 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종합계획또한 장기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방향이 불투명함을 지적함.

+객관적인 지표로 채점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성과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사고 건수와 범죄발생률등이 인구 대비 평균적으로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함.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TF팀을 구성해 분기별로 대응중, 특히 동구와 대덕구는 서구,유성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여 계속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함. 조도개선사업, 안심안전마을 확대 등의 추진중인 사업 설명함. 결과적으로 화재사고, 교통사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감소하여 2020년 11월 말 예정인 지역안전지수 전국 발표에선 2019년에 비해 객관적으로 상승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함. 동구와 대덕구민의 고령화, 노인 1인가구수가 타자치구에 비해 높은 편에 따라 보건복지국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상담센터,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에 신경 쓰고 있다고 답

변함.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대전 소재정부출연 연구원 안전사고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건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이에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대전에 소재된 국가 출연 연구기관의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 질의함. 2016년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마련하라 요구했으나 방사능 폐기물 보관 관리 현황, 방사능 측정기기, 전광판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아 예방 또는 시민들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충분한 대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대덕연구단지내의 정부 출연 연구원 안전사고가 다수 지적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 진행 상황,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장 협의회의 회의 진행상황에 추가적 질의함.

+ 방사능 수치 관련 표시 전광판을 2017년도부터 운영,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위치 현황, 방사능 수치 데이터등 자료를 제출하기로 함.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시민감시 위원회에 국비 예산 6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기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 예방, 감시체계 확충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늦장보고 또는 사건 은폐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경주 방폐장으로 대전시내 보관중인 핵폐기물 반출 건이 곧 진행될 것이며 감용 처리에 있어서도 지역 자원세를 부과해 생산량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서 핵폐기물 반출계획안, 자료를 의원에게 제출하기로함.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원자력시설 관련 법률 개정, 제도 개선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답변함. 코로나19로 인해 지연, 취소되고 있는 협의회에 대해선 최대한 속개하도록 하겠으며 사건, 사고를 은폐하지 않고 즉각 보고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③ 홍수, 태풍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에 관한 건

-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조례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안전도시협의회 운영과 구성에 대한 자료 요청함. 태풍, 홍수피해와 침수피해, 저수지, 댐 관련 안전위원회가 2018년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나 올해 코로나19를 마치 핑계인 듯 전혀 운영이 되지 않거나 개최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 조례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함. 2020년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주민이 극히 일부인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시민의 퍼센트가 적은 점, 풍수해보험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질의

함.

+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 보험가입 및 신청자의 집계가 연초, 연말, 상반기, 하반기등으로 나뉘어져 적어보일 수 있고 2020년 풍수해보험 가입이 현시점에서 만건, 11월 말로 보았을 때 만천건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함. 피해 보상액이 일부분야에서 두배 증액되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을 인정하며 시민들의 가입을 더욱 독려하겠다고 특히 침수위험지구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홍보 추진 의지를 표명함.

④ 시민안전종합보험 운영에 관한 건

- 사회안전망 구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업임을 지각시키며 보험지급액을 증액해야함을 제시함. 시민들의 민원에서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 이를 설명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함. 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의 만족도, 평가 인지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자료가 준비되어있지 않아 속히 조사를 시행하고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함.

+ 주민센터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를 해왔으나 참여도와 인지도에 있어 미약한 점에 대해 개선하고 공식적인 만족도조사와 평가를 시행해 보고할 것이라 답변함. 사고의료비의 과도한 지출, 중복지급액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검토해 갱신계약시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 답변함. 타지역에 비해서 보험지급액이 크지는 않으나 시민들이 보상받는 정도가 높은 편을 추가적으로 답변함.

3. 기타

- 긴급재난알림문자 중복발송, 과다발송에 관한 질의
-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질의
- 스마트 재난 예,경보 체계 운영에 관한 질의
-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원인과 대책, 예방 마련에 관한 질의
- 도심 댜댜지 출몰로 인한 위험 예방 대책에 관한 질의
- 민방위 참석률 개선방안 또는 참석대체방안에 관한 질의
- 안전신문고, 생활신문고 처리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
- 1인가구세대 증가 추세 원인 분석과 1인가구세대 증가로 인한 범죄율 상승 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질의
- 방독면 보급 현황 및 보관 현황, 관리 중 안전성에 관한 질의
- 코로나19 대응 재난기금 확보에 관한 질의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문성원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동선 보고등을 알리는 중요한 긴급재난문자발송이 심야시간에는 개인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익일 발송하라는 등, 긴급재난문자가 과도하게 발송되어 어느 순간부터 확인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는 발언이 시의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지적, 질의한 것인지 의문임. 허나 사전에 대전시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수집해 미래 예상 데이터를 계산해오는 등의 자료 준비성이 있었음.

- 김종천 : 풍수해보험 관련 질의. 시민들의 참여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함. 사업평가에 신경써달라며 당부에 그침.

- 민태권 : 지역안전지수 관련 질의 등 취약지자체 등급 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 취약지역 사업선정 건수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시함. 예산 낭비 우려,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지역차 현황에 대해 조사해왔으나 추상적인 높은 안전지수등급의 지역 사업 벤치마킹 제시 수준의 제안으로 그침.

- 우승호 : 조례에 기반한 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지적함. 주로 시민 안전실 보고자료 내용에 속하지 않은 시민 안전 관련 사항들을 지적한 점에서 준비성이 있다고 보임.

5.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평가

중복되는 질의, 반복해서 답변한 데이터, 수치, 보고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서 의원별로 준비해온 질의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아 위원회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평가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을 주었다. 사전자료조사 및 데이터 수집 발표등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평가에 임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면이다.

2)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0일(화) 10:00 ~ 17:3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피감기관	과학산업국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찬술, 위원 : 윤종명, 남진근, 오광영, 이광복, 박수빈)

(2) 산업건설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산업건설위원회_과학산업국 주요 안건

①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주민수용성에 대한 질의

- 대전의 에너지 자립률이 전국 최하위이고, 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2040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했음. 또한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킬 사업들이 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음.

+ 미니태양광, 에너지융복합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권이 가속화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함.

+ 시의 에너지 정책의 3가지 축은 에너지 산업, 에너지 보급, 미래에너지에 있다고 함. 현재 산업과 보급은 팀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너지, 주민수용성 부분은 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함. 이에 내년에는 미래에너지산업팀을 만들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답함.

② 바이오, 메디컬 전담부서에 대한 질의

- 바이오메디컬 규제 운영특구 주관은 대전TP가 하나 전문성은 부족한 상황. 유전자 의학, 바이오, 메디컬 관련 대전시의 주관 부서가 없고, 각 단체의 연결만 하고 있음.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산업인데 집중이 안되고 분산이 되고 있음. 바이오 과도 만들고 인력을 충원해야하지 않냐는 질의

+ 바이오 메디컬 규제특구는 대전TP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충남대병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함. 스마트 유전자, 바이오 메디컬 분야 등 전담 기관이 있어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함. 시에도 팀만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함.

③ 대덕특구 개발관련 현대백화점 및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대전지역 경제상생 마련에 대한 질의

- 대전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도로도 내고 설계변경요청 허가도 내주지만 하지만 지역의 중소상인과 골목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지역상생협력기금 등 대전시와의 협약사항과 지역중소상인 지원방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함

+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현대아울렛에서 전체 디자인변경에 대한 필요로 설계변경이 요청을 하였고 지역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들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꾸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답함.

- 현대아울렛과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말하는데 5층이 후로는 호텔로 사용하는 고층 빌딩이 대전에 필요한 지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함

(3) 기타

-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
-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및 본관 이전에 대한 질의
- 사이언스콤플렉스, 현대아울렛의 지역과의 상생에 대한 질의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질의
- 공공부지 수소충전소 건립에 대한 질의
- 올레브 버스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질의
- 공공시설 유희부지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한 질의
- 대덕특구 신동지구 입주평가 기준 및 기업 유치에 대한 질의
- 나노산업 국비 반납에 대한 질의

-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코로나 백신, 신약개발에 대한 질의
- 드론 비행금지구역 제한 해제 및 드론 사업 육성에 대한 질의
- 수소충전소에 대한 질의
- 테크노파크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한 질의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박수빈 : 언론보도를 잘 활용하여 질문을 함. 다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잘 확인하고 의견을 내면 좋을 것 같음. 또한 언론보도를 넘어 관련한 데이터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광복 : 질문이 많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질의들을 했음. 다만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었음.

- 오광영 : 데이터, 보고서, 언론자료, PT 등을 잘 활용해서 질문을 함. 평소에 간담회나 토론회, 데이터조사 등을 통해 현황 파악을 잘 한 것 같음.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준비를 잘 해왔음.

- 남진근 : 구체적 데이터나 정황을 바탕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음.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질의를 함. 행정사무감사와 크게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집중하기도 했음.

- 윤종명 : 질의가 많지 않음. 설문조사나 관련 자료가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이야기 함.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함

5.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평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꼼꼼히 하는 것은 좋아 보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질의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나노분야, 바이오분야) 추상적이거나 근거자료가 없이 질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시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임.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하기보다는 대전시의 중점 사업을 파악해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행정부의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상세히 답변하는 모습은 좋았으나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요지와 관련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음.

4) 교육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검토